



▶ 미국곡물협회 한국지부
개설 30주년 기념 행사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수요 탄력적 대응 위해 조직 개편

▶ 축산기술연구소
농협 축산책자 3종 발간 배부

▶ 축산단체협의회
「한국 축산의 당면과제와 대책」 심포지엄 개최

▶ 축산기술연구소
토종닭 증병아리 과수능가에 분양

미국곡물협회 한국지부 개설 3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미국곡물협회 한국지부는 개설 30주년을 맞

아 오는 6월 2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오후 5시 30분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6시 까지 리셉션이 열리며, 6시~7시 본 행사, 7시 부터는 만찬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 (02)720-18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수요 탄력적 대응 위해 조직 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수요의 탄력적 대처를 위해 기존의 2부3센터3실의 연구부서를 4센터1실로 개편했다. 이정환 원장은 5월 20일 취임하면서 국내의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농산업경제연구부'와 '농촌발전연구부'를 '농산업경제연구센터'와 '농촌발전연구센터'로, '농업관측센터'를 '농업관측정보센터'로 각각 개편하고 기존 업무와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처하도록 인력과 조직을 정비했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책분석팀과 재정금융팀 등 6개 연구팀을 한데 묶은 농정연구센터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의 산림정책연구실은 고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총 4센터1실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연구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기획조정실과 행정실을 정비하고, 자료정보지원실을 신설하여 전산과 자료, 출판 등 연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지원토록 했으며, 벤처농기업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농업계, 비농업계, 정부 등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변화를 선도해 가도록 노력하고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

-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서중혁
- 부원장 정명채
- 기획조정실장 이동필
-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 김명환
- 농촌발전연구센터장 오내원
- 농업관측정보센터장 최정섭
- 농정연구센터장 박성재
- 자료정보지원실장 정인걸

축산기술연구소 · 농협

농협 축산책자 3종 발간 배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와 농협은 「새로운 젓소 사육기술」 「새로운 돼지 사육기술」 「새로운 육계 사육기술」 등 3종의 책자를 발간, 전국 농촌지도직 공무원 등에 배부해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본 책자는 축산기술연구소와 농협이 실제로 연구하고 경험한 산지식을 바탕으로 가축개량부터 번식, 출하·유통, 질병관리 등 전 분야의 기술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agis.nlri.go.kr>

축산단체협의회

「한국 축산의 당면과제와 대책」 심포지엄 개최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송석우)는 6월 7일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회원 단체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2일 「한국 축산의 당면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서울 성내동 소재 농협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농업발전과 축산의 역할 ▲축산발전을 위한 방역대책 ▲협동조합 등

합 2년의 회고와 대책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서 소위를 구성해 심포지엄 개최를 추진해 온 단체장들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수석전문위원이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결정됐으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참석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방역청 신설과 관련해 주요 질병의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축단체 명의로 내기로 했다.

축산기술연구소

토종닭 중병아리 과수농가에 분양

대전시 대덕구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 생산된 토종닭 중병아리를 과수 농가에 입식해 특수사육 관리기술을 농가로부터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보급되는 토종닭은 토종닭과 오골계를 교잡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품종을 개량해 육질이 우수한 실용계를 미생물 발효제와 한약재 등을 혼합한 배합사료를 사용해 70일 정도 사육후 2~3kg 규격으로 출하한다.

대덕구는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확대 보급하기에 앞서 신탄진 장동 과수재배농가 송복수씨를 시범농가로 선정, 지난 3월에 500마리를 시범 입식해 1차 출하를 시작, 일반음식점 등에 공급한 바 육질이 부드럽고 우리 입맛에 딱 맞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덕구는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한방토종닭 사육을 지역의 특화농업으로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 사육농가를 확대 보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